

謹身歌



[해제]

<근신가>는 『강륜보감(綱倫寶鑑)』 권지일(卷之一)에 수록된 국한문 혼용체의 짧은 가사이다. 이 가사의 정확한 창작시기와 작자는 알 수 없다. 다만 『강륜보감(綱倫寶鑑)』의 첫 장에 “全南 羅州郡 細枝面 松堤里 春儒生 金福千 留巖 辛丑年 七月十五日”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강륜보감』이라는 책은 신축년에 전라도 나주군에서 유생 김복천이란 사람이 제작 혹은 소장했던 책이 아닐까 추정된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가사의 주된 내용은 인륜(人倫)이다. 부모에게 진정한 효를 행하기 위해 자식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논하고 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의 도리를 노래하며 『논어(論語)』 「學而篇」의 글귀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원문]

父母에서 有疾하사 飲藥을 하시거던
子息이 묻저 嘗味하며 告天至誠 비러보되
疾病이 囹春커던 도로예되로 하야보시

七. 謹身歌

謹身하시 謹身하시 孝子난 謹身하시
父在할제 其志을보고 父沒할제 其行을보니
父之道을 三年을 無改라야 可孝며
所行함이 不然하면 孝行을 不得이라
父母에서 雖沒이나 將次에 爲善함에
父母세 令名씨침을 生覺하야 果端하며
將次에 不善함에 父母세 羞辱씨침을
生覺하야 果端말시 孝子난 謹身코저

居喪祭享歌

[현대역]

부모(父母)께서 유질(有疾)하사 음약(飲藥)을 하시거든
자식(子息)이 먼저 상미(嘗味)하며 고천지성(告天至誠) 빌어보되
질병(疾病)이 회춘(回春)23커든 도로 옛날대로 하여 보세

七. 근신가(謹身歌)

근신(謹身)1하세 근신(謹身)하세 효자(孝子)는 근신(謹身)하세
부재(父在)할 제 기지(其志)를 보고 부몰(父沒)할 제 기행(其行)을 보니2
부지도(父之道)를 삼년(三年)을 무개(無改)라야 가효(可孝)며3
소행(所行)4함이 불연(不然)5하면 효행(孝行)을 부득(不得)6이라
부모(父母)께서 수몰(雖沒)이나7 장차(將次)에 위선(爲善)8함에
부모(父母)께 영명(命名)9 끼침을 생각(生覺)하여 과단(果端)하며
장차(將次)에 불선(不善)10함에 부모(父母)께 수욕(羞辱)11 끼침을
생각(生覺)하여 과단(果端) 말세 효자(孝子)는 근신(謹身)하고저

거상제향가(居喪祭享歌)

[각주]

- 1) 근신(謹身) : 몸차림이나 행동을 삼감.
- 2) 부재(父在)할 제 기지(其志)를 보고 부몰(父沒)할 제 기행(其行)을 보니 : 부모가 살아계실 땐 그 뜻을 살피고, 돌아가시면 그 행위를 살피니.
- 23) 회춘(回春) : 봄이 돌아옴. 늙은이의 중한 병이 낫고 다시 건강(健康)을 회복(回復)함. 다시 젊어짐. 침식력(浸蝕力)이 약(弱)해졌던 노년기(老年期), 장년기(壯年期)의 지각(地殼)이나 하천(河川)이 다시 침식력(浸蝕力)을 회복(回復)하여 유년기(幼年期)의 성질(性質)을 띠는 현상(現象).
- 3) 부지도(父之道)를 삼년(三年)을 무개(無改)라야 가효(可孝)며 : 3년을 넘겨도 선친의 길을 고치지 않아야 효라고 이를 수 있으며
- 4) 소행(所行) : 행한 바.
- 5) 불연(不然) : 그렇지 아니함.
- 6) 부득(不得) : 얻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 7) 수몰(雖沒)이나 : 비록 돌아가셨으나.
- 8) 위선(爲善) : 선한 일을 행하다.
- 9) 영명(令名) : 좋은 명성이나 명예.
- 10) 불선(不善) : 선한 일을 행하지 않다.
- 11) 수욕(羞辱) : 수치와 모욕.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